

개인리스와 할부차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 차량소유주 주체

첫번째는 차량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부는 내가 돈을 월마다 나누어 내면서 직접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부금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명의는 내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리스는 금융회사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 리스의 경우는 리스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내 명의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차량의 잔존가치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2. 초기비용의 차이

두번째는 초기비용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할부로 구입을 할 때는 자동차세와 취득등록세,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등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리스는 월마다 내는 리스료에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덜한 것입니다.

3. 차량 유지관리비

세번째는 차량을 유지하고 관리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할부로 할 때는 차에 문제가 발생할시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을 해야 하죠. 그러나 리스는 개인이 부담을 지을 수도 있고 리스회사를 통해 유지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4. 약정거리의 제한

리스는 보통 계약기간이 3~4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에 약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3년에 10만키로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10만키로 넘게 될때 추가이용할증료 라는게 붙게 됩니다. 할부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죠.

여러가지를 살펴볼때 할부보다 리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초기비용 부담이 별로 없는 점,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비용처리를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 차량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탈 수 있다는 점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단점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했듯이 주행거리의 제한이 있는점, 자동차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점, 차량보수 및 유지 포함가격이 비싸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렌트카 이용자의 절반이 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구요. 장기렌트의 장점은 주행거리 제한이 없고 LPG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 차량보수도 렌트료 안에 리스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자동차보험도 내 가 따로 들 필요가 없이 렌트카 업체에서 들어주구요.

그래서 장기렌트카의 단점으로 무사고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나도 부담이 훨씬 덜 할 수 있는게 장기렌트카입니다.